

몽골의 투자환경과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연구위원
l jy@kiep.go.kr

제성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CIS팀 부연구위원
shjeh@kiep.go.kr

김홍진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khj506@sch.ac.kr

간투무르 몽크나산(G. Munkhnasan)
몽골국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munnasa@hanmail.net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최근 전 세계가 몽골의 경제성장을 주목하고 있음.**
 - 1990년대 시장경제 체제전환 초기에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시장경제를 정착시켰음.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광물 수출 호조, 가축 사육두수의 증가, 물가안정과 산업생산 증가로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연평균 약 9%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음.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성장세가 주춤했으나, 중국의 원자재 수요 증가, 국제광물가격 상승 및 광업 부문 투자확대로 2011년에는 17.3%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몽골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도 현저히 개선되고 있음.**
 - 유로머니(Euromoney)의 국가위험순위(ECR) 평가에서 몽골은 2007년 총 184개국 중 117위였지만, 2011년에는 총 186개국 중 94위를 기록했음.
 - 세계은행은 몽골의 경제성장률을 2012년 17.2%, 2013년에도 약 12%로 전망하고 있으며, IMF는 2016년 몽골의 1인당 GDP를 약 8,000달러로 추정하고 있음.

- **몽골 정부는 1차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몽골 정부는 광물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면서, 동시에 낙후된 관련 인프라의 대대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몽골 정부는 광업 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주요 전략광산들과 연결되는 철도와 도로 건설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며, 제조업 및 에너지 부문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매진하고 있음.

- **최근 대몽골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몽골의 투자환경의 종합적 고찰을 통한 체계적인 진출방안 및 투자전략 수립이 매우 시급함.**
 - 1990~2010년 외국인직접투자 누적 총액 48억 4,032만 달러 중 76.8%가 2005~10년에 투자되었을 정도로 최근 급속한 증가세에 있음.
 - 현재 한국의 대몽골 투자는 주로 도소매업, 요식업, 광업 위주의 소규모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제조업, 금융업 등 최근 유망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실정임.

- 본 연구는 몽골의 투자환경 전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경영실태와 애로점을 파악하여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음.
 - 특히, 선행연구가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현지에 진출한 59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설문조사와 현지 전문가 및 기업 대표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와 분석을 제공하고자 하였음.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몽골의 경제 현황과 중장기 전망

- 몽골의 주요 산업은 광업, 농·목축업, 제조업(캐시미어 및 섬유 가공), 도소매업, 관광산업 등임.
 - 광업은 GDP의 약 20%, 산업총생산의 약 60%, 총수출의 약 80%를 차지하며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음.
 - 농·목축업은 비중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종사자를 가지고 있고, 제조업은 아직 10% 이하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몽골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에 힘입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도소매업과 부동산업은 광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의 효과, 즉 지출효과(spending effect)에 따라 꾸준히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몽골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2007년까지 정부의 재정수지가 흑자였고 공공부채 규모도 감소되었으나, 2008년을 기점으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가 증가하기 시작했음.
 - 몽골 정부는 적자규모가 GDP의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으며, 2010년 2월에는 정책입안자가 재량으로 정부지출을 늘이지 못하게 하는 재정안정법(Fiscal Stability Law)을 제정하였음.
- 몽골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에 힘입어 점차 금융시스템이 안정되고 있음.
 - 1990년대 초 체제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금융시스템을 도입하였지만, 정부의 정책 실패, 금융 전문 인력의 부족,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음.
 - 여러 평가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2016년까지 몽골의 실물경제 규모가 3배 이상 성장할 것인데,

이에 따라 금융시장 규모도 커질 것으로 전망됨.

- 몽골 정부는 투자뿐만 아니라 무역에서도 상대국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 최근 몽골의 대외무역 규모가 확대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
 - 이로 인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또는 이 국가들의 경제상황 변동이 몽골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는 이것을 경제 불안정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음.
- 몽골 경제의 주요 정책과제는 자원기반 경제의 장점을 활용한 연관 산업의 발전 및 다변화, 물가 안정, 실업률 감소 및 빈곤 해결, 효율적 경제정책 운용, 산업정책 수행 및 거시경제 관리 등임.
 - 몽골 정부는 이러한 정책과제에 부합하는 중기 국가발전전략 및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과제가 착실히 수행된다면 몽골 경제의 중장기전망은 매우 밝을 것으로 전망됨.

2) 몽골의 투자환경 분석

- 몽골의 외국인투자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UNCTAD가 평가한 외국인직접투자 잠재지수에서 몽골은 총 141개국 중 1995년 95위, 2000년 79위, 2005년 75위를 기록하였으며, 외국인직접투자 성과지수는 1995년 91위, 2000년 45위, 2010년 3위로 놀라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음.
 - 세계경제포럼이 평가한 국제경쟁력 지수에서 몽골은 2011년 세계 142개국 중 96위를 차지하였는데, 이것은 2009년 117위에서 2년 만에 21단계나 상승한 순위임.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3”에 따르면, 2012년 몽골은 총 185개국 중 기업환경 평가에서 76위(2011년 88위)를 차지하였고, 특히 창업부문에서 39위(2011년 95위)를 기록하여 중국(151위), 러시아(101위)보다 훨씬 좋은 투자환경임을 인정받았음.
- 몽골은 낙후된 인프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국토 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적은 내륙국이기 때문에 교통 및 운송(철도, 도로, 항공), 전력, 통신, 통관 등의 인프라 환경이 낙후되어있음.
 - 몽골 정부는 중기 국가발전전략에 따라 철도 및 도로의 확장, 항공 서비스 증진,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 정보통신기술 발전, 통관 서비스 개선 등 제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몽골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노동인구가 적다는 점임.
 -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일자리는 늘고 있으나, 한편으로 실업률도 비교적 높은 수준에 머물러

- 있는 이른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이것은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고 저임금으로 인해 많은 노동인구가 국외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임.

- 몽골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법·제도적 환경을 개선해왔음.
 - 외국인투자자들이 모든 부문에서 내국인과 동등하게 생산 및 영업 활동과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여러 외국인투자 관련법을 제정하였음.
 -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안정협정(Stability Agreement) 체결, 자유무역지대 설정, 토지사용 허가, 낮은 관세율 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3) 주요국의 대몽골 투자 현황과 전략

- 중국은 현재 가장 많은 외국인직접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 내 광물자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양국 간 철도 및 도로망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임.
 - 중국 기업들은 타 기업과의 중복투자를 피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광물자원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 러시아의 투자는 과거 사회주의 시절에 개발된 광산 및 광물가공공장 관련 기반시설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러시아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과 달리 몽골·러시아 양국의 전통적인 협력 방식인 합작투자를 선호하고 있음.
- 일본의 투자는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일본 기업들은 현지 사정에 정통한 몽골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면서 제조업, 요식업, 정보통신 부문에 투자해왔는데, 최근에는 광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캐나다는 2011년까지 누적투자액 기준 6위를 기록한 주요 투자국으로서 오직 광물자원 개발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캐나다 기업들의 투자는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광업의 특성상 단독투자, 몽골 기업과의 합작투자, 제3국 기업과의 합작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11년까지 누적투자액 기준 8위를 차지한 미국도 대부분 광물자원 개발에 투자해왔지만, 최근에는 무역 및 요식업, 금융업 등 다양한 분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4) 한국기업의 대몽골 투자 현황과 경영실태 분석

-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59개 현지 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먼저 기업들의 현지 진출 형태, 주요 업종, 현지 종업원 수, 매출액, 현지 영업개시 연도, 진출동기, 진출 시 유용정보 입수 출처 등과 같은 기본정보를 파악하였음.
 - 몽골 현지에 있는 한국기업들의 주요 업종은 광업, 서비스업, 도소매유통업, 숙박/요식업 등이며, 제조업은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기업들은 대부분 종업원 10명 이하의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의 매출액 규모는 다양하며, 2000년대 말 몽골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던 시기에 주로 지인들을 통해 현지 정보를 입수하여 진출하였음.
- 현지 경영실태 파악을 위해 법인 설립 이전과 원부자재 및 금융조달 시 애로사항, 매출의 지역별 구성, 판매제품의 수준과 브랜드 인지도, 내수판매의 유통경로와 장애요인, 임금관리 · 고용관리 · 인사관리의 애로사항 등 현지 비즈니스 환경 전반을 분석하였음.
 -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업개시 이전에 현지의 복잡한 행정체계, 투자허가기관 및 파트너의 잦은 행동변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현지의 제조업 미발달과 금융인프라 미비로 인해 원부자재 및 물품과 운영자금을 주로 한국에서 조달하고 있음.
 - 현지 진출 기업들의 제품 또는 서비스는 대부분 현지 내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고, 품질은 중급 이상이며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음.
 - 현지 내수판매는 현지의 열악한 유통망 및 물류망을 고려하여 직영매장 또는 현지협력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장 큰 장애요인은 금융인프라 미비로 인한 대금회수 곤란, 저렴한 중국제품의 유입으로 인한 가격불리 등이었음.
 - 임금관리와 고용관리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높은 임금상승률과 높은 이직률로서, 현지에서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또는 숙련공을 구하기가 어려움.
 - 현지 비즈니스 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인프라 부문이 가장 열악하며, 원자재/부품 조달, 고용/인사관리에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노사갈등/분규, 부가세 환급지연, 현지 행정당국의 경영 간섭 등은 거의 없음.
-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을 찾기 위해 최근 성과지표, 현지사업 운영 방향 및 전략, 주력 제품의 수준 변경계획, 현지 비즈니스 활동의 장애요인, 비관세장벽 강도, 한국 정부 및 공공기관과 몽골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분석하였음.

-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의 매출액과 순이익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철수 또는 사업규모 축소가 아닌 현상유지 또는 사업규모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
- 이들 기업은 향후 마케팅 강화와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지향하고 있으며, 주력제품의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
- 기업들이 경험한 현지 비즈니스 활동의 장애요인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고용 및 임금, 세무와 관련된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크지만 금융 및 외환, 투자장벽과 관련된 어려움은 크지 않음.
- 한국 정부/공공기관에 대한 건의사항을 조사한 결과, 현지 영사기능 강화, 투자 정보 제공 서비스, 금융 지원 등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몽골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은 비자 편의 제공 및 장기비자 발행, 외국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물류부문 개선 등이었음.

3. 정책 제언

1) 한국기업의 투자진출 유망 분야

- **[광업 분야]** 광업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됨.
 - 몽골은 전략광산 개발의 경우 철도, 도로, 용수 및 발전시설, 신도시 건설 등 관련 인프라 구축에 참여 또는 지원하는 국가의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기업의 투자를 정부의 ODA 차원의 수송망(철도, 도로 등) 건설, 몽골 정부가 추진하는 민관협력(PPP) 사업 참여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의 EDCF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외국기업들과의 입찰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채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광물개발과 가공공장 설립을 동시에 제안하는 것임.
- **[플랜트 분야]** 광물가공공장(구리제련소, 제철소, 정유공장, 석탄가공공장) 및 원자력발전소 건설 분야 진출이 유망함.
 - 몽골 정부는 광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광물에너지부를 중심으로 구리나 금 등 주요 광물을 마지막 단계까지 가공하여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몽골 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에너지 대외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몽골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
- **[교통인프라 분야]** 한국기업은 광물개발사업과 연계된 철도건설사업, ODA 및 EDCF와 연계된 도로건

설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 몽골 정부는 현재 20여 개의 교통부문 발전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데, 몽골 내수시장의 활성화 및 대외교역 증가추세와 정부의 예산규모를 감안할 때, 외국기업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임.
- 2001년부터 인접국과의 국제교통망 연계와 국내교통망 정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밀레니엄 도로 프로젝트에도 외국기업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음.

● **[건설 분야]** 호텔, 빌딩 등의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현지의 건설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수주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 몽골 정부의 주택 보급 정책, 도시개발 활성화로 다시 건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현지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술 수준이 높지 않은 반면, 한국 건설사들은 이미 풍부한 해외건설 경험과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됨.
- 건설자재 및 인테리어, 내부설비 등 연관 분야 진출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농·축산업 분야]** 한국기업의 진출 시 유기농 농장, 육가공식품 생산공장 설립이 유망함.

-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주요 국가에서 식량안보와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몽골은 지구상에서 생태학적으로 가장 청정한 농축산물, 즉 유기농 식료품 및 육가공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임.
- 친환경 유기농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한국은 물론, 중국(내몽골, 동북3성 등)과 러시아(극동, 시베리아)의 고소득층 소비자를 공략하는 방법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한국기업들은 식료품 가공기술 면에서 중국, 러시아 기업들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햄, 소시지 등 고품질 육가공식품 생산공장 설립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관광산업 분야]** 한국 관광기업의 협력 투자를 통해 몽골의 관광자원을 더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임.

- 몽골은 청정한 자연과 다양한 역사·문화 유적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이것을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음.
- 관광산업 인력의 교육훈련, 호텔경영 기법의 전수 등 운영 전반에 걸친 협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광산업에 진출하는 경로를 찾을 수 있을 것임.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 중 하나는 다른 노선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한국과 몽골 간 항공료 인하임.

● **[금융업 분야]** 몽골에서는 아직 금융업이 초보적인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국 금융기관이 진출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몽골 은행들은 업무의 절반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관계로 한국에 비해 매우 낙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몽골에 한국식 금융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몽골 증권시장 역시 현재 약 90여 개의 현지 증권회사와 약 20여 개의 외국계 증권회사가 난립해 있는 상황이 보여주듯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향후 금융시스템이 빠르게 정비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기업 IPO가 본격화되면 다양한 금융상품들도 개발될 수 있을 것임.

●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주도의 소규모 제조업 진출이 유망함.**

- 300만 명 미만의 적은 인구, 급격한 임금상승, 운송인프라의 미비,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저가 상품 등이 제조업 발전을 방해하고 있기는 하나, 현지 광물자원 개발 및 건설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제품 생산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음.
- 몽골의 캐시미어 제품이 매우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여기에 한국기업의 기술력이 결합된다면 해외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임.
- 해외시장을 겨냥할 경우 몽골 정부가 정책적으로 다양한 특혜를 제공하는 자유무역지대로의 진출이 바람직함.

2)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 **현지 투자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이 요구됨.**

- KOTRA 무역관 현지 개설로 한국 중소기업에 몽골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국내 기업의 몽골 진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몽골과 한국의 학술교류(공동연구, 세미나 등)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민간차원의 정보 확보 및 공유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체계적인 투자정보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시급히 고려해야 할 것임.

● **비자면제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 현지 진출 기업인들이 몽골의 낙후된 행정시스템으로 인해 투자비자 갱신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바, 투자비자의 유효기간을 최소 3년으로 연장하여 몽골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양국의 경제협력을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자유로운 인적 이동을 보장하는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 **현지 영사서비스 강화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보장할 것임.**
 - 최근 현지에서 민족주의적 정서가 확대되고 있고, 외국계 기업의 자원 개발을 ‘약탈’로 받아들이는 현지의 사회적 인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크고 작은 폭력 등으로 인해 기업인들이 신변 안전을 걱정하고 있음.
 - 재외공간은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현지 정·관계 인사들과의 대화 채널 마련 및 현지 치안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한국인의 신변 안전은 물론 더 나아가 비즈니스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한국의 국가적 이미지 제고가 상품 및 서비스 판매는 물론 투자협력 등 모든 형태의 비즈니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몽골 국민들은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나 일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 확산되지 않도록 ‘몽골, 몽골인의 친구’로서 한국의 이미지를 보다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지에 ‘한국문화원’을 개설하여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한국영화 주간, 한국문화 축제, 한글날 행사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현지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사회주의 정권 시절에 형성된 경제영역에 대한 정치영역의 우위 및 통제시스템이 유지되고 있고, 여전히 법·제도에 비해 인적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막대함.
 - 현지 공관을 통한 주요 인사와의 정기적인 접촉, 한·몽의원친선협회를 통한 국회 차원의 인적 친선 도모, 학술행사 등에 주요 인사 초청, 신병 치료를 위해 방한한 몽골 주요 인사에 대한 편의 보장 등도 인적 네트워크 강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